新年隨想

소소한 행복은 수행서 비롯된다

종현 스님
대구 도림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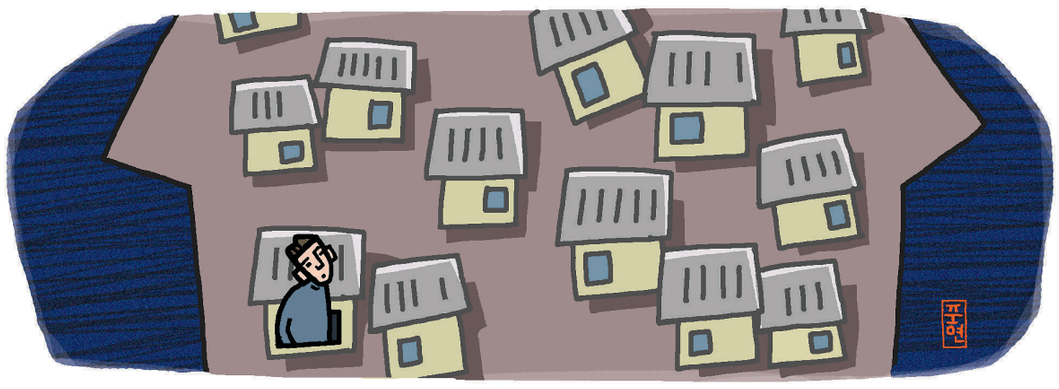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새해 소비 트렌드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규모 수행 모임, 최근 불자들의 신행형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수행서 행복을 찾자
'得小爲樂 · 知足長樂' 법열 안서 자유 누리길

다시 새해가 밝았다. 인생이 늘 그렇듯 한해를 뒤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연말이 되면 으레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 사회의 지도층과 각 단체, 연구 기관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분석하는 메시지이다.

대학 교수들은 2018년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다. 잘못된 견해와 바르지 않은 길을 과감히 없애 사악하고 그릇된 것이 사라지면 바른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오랜만에 불교의 가르침이 사자성어에 선택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바로잡을 것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미 지난 과거가 되어 버렸지만 거리로 쏟아져 나온 많은 국민들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열정으로 정권을 심판했고, 이후 쌓아온 적폐를 청산하며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다.

2018년의 파사현정은 잘못된 관행과 관습,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해가 되리라는 것을 교수님들은 내다봤다.

〈금강경〉에서는 색(色)과 소리(聲)에 집착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능히 본질을 볼 수 없다고 했다. 경계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속에서 밝게 빛을 발하는 불성(佛性)을 바로 볼 때 파사현정은 이루어진다고 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무술년 개띠해의 소비 트렌드는 비주류가 주류를 잡는 '웩더독(Wagthedogs)'이 될 것이며 주요 키워드는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소확행'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웩더독은 작은 꼬리가 몸통 전체를 흔든다는 의미로 사은품이 본상품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중매체보다, 유튜브 등 1인 방송이 주류 방송매체보다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실제로 개모양의 목베개 사은품을 받기 위해 아이스크림 가게에 줄을 서고, 열쇠고리 인형을 받기 위해 햄버거를 사먹는 양태는 이미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우리들의 삶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불확명한 미래보다 작을지라도 현재의 확실한 행복에 사람들은 돈을 쓴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한 연구소의 2018년을 내다보는 하나의 예측분석일 뿐이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흐를 것이라 확언하긴 힘들지만 다양한 분석과 자료를 바탕으로 내놓은 결과이니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절집에서도 이러한 성향의 수행형태들이 나타난다. 이전에는 대형 법회나 행사, 유명한 스님들의 법문을 좇아 많은 불자들이 몰렸다면 요즘 나타나는 신행형태는 작은 소규모의 모임으로 개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사찰에도 소속되지 않는 신행모임이 만들어지고, 사찰순례나 템플스테이, 합창단, 교리연구회, 문화유적답사, 사진촬영모임 등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모임화 되어 신행으로 발전되고 있다.

나아가 수행과 기도를 해본 불자라면 아예 집에 조그마한 수행공간을 만들어 놓고 참선, 108배, 명상, 다라니, 사불, 사경 등 자신의 근기에 맞게 각자가 수행을 한다. 집단적 수행에서 개별적 수행형태로 변화해가는 이런 형태는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수행 후의 만족감과 성취감이 매우 높다고 한다.

사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장소와 환경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안정을 취할 삶이 줄어든다. 나만을 위한 작은 단위의 신행활동을 하려는 불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부처님도 가족을 버리고 출가했으며 6년 동안 홀로 고행을 했다. 지금도 제방에서는 2평 남짓 조그마한 방에 열쇠로 문 걸어 잠그고 무문관 수행을 한다. 수행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번은 가야할 길이 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공부에 조금이라도 맛을 느낀다면 그 법열, 기쁨은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다.

중국의 시인으로 술과 인연이 많던 이태백은 가장 맛있게 즐기는 술은 달밤에 그림자와 벗하며 먹는 '월하독작(月下獨酌)'이라고 했다. 술 역시 혼자 먹는 술이 최고란 이야기다. 요즘 사회적으로 혼술, 혼밥이 유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홀로 수행한다는 것에는 즐거움만큼의 함정도 있다. 이태백처럼 월하독작을 따라 혼술, 혼밥을 즐기다 알콜중독과 우울증에 빠지고 홀로이 수행과 기도할 때는 독선과 이기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스승을 통한 점검이 중요하고, 도반을 통한 공부와 수행, 대화가 중요하다. 2017년 동안거에 드는 사부대중에게 종정 스님께서 법어를 통해 "인생 길다 해도 참선수행 한나절 한 가로움에 미치지 못함이라"라고 설하셨다. 수행과 기도, 공부에서 오는 법열은 인생 백년과 바꾼다 해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을 통해 느끼는 법열(法悅), '득소위락(得小爲樂) 지족장락(知足長樂)'이다. 적은 것에 행복해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오래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의 수행을 통한 환희, 법열을 느끼기 시작하면 세상이 넓어진다.

명상, 염불, 기도, 절, 주력 하루 10분만이라도 생활화하며, 명상을 통해 하루 일상을 시작하길 바란다.

아침 명상을 통해 바라본 하루가 현실 속에서 진행될 때, 그 하루는 알차고 계획적이 되며 난처한 일, 힘든 일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수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하루 5분 참선, 108배, 다라니 독송, 사경 등을 통해서 불제자로서의 지혜로운 살을 살아갈 수 있다.

'소확행' 불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행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먹을 때 족한 줄 알고, 두 번째는 일을 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세 번째는 먼저 모으고 쌓아 그로써 구차할 때를 준비하라. 네 번째는 밭 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 먹이고, 다섯 번째는 마땅히 절에서 조상을 섬기며, 여섯 번째는 절의 불사를 일으켜 법륜을 돌려라. 가정에서 있어 이 6가지를 부지런히 힘써 잘 닦는 사람은 곧 그 집에 손감(損減)이 없고 재물은 날로 점점 불어나 바다가 온갖 물을 머금은 것 같으리.'

〈장아함경〉11권 '선생경'

2018년 무술년이 밝았다. 계획을 세우고 한해를 내다보아야할 시점에서 내년의 유행과 소비형태, 가치관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잘 살펴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자.

社說

여법한 한 해 되기를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사는 모습이 법 안에 있지 못할 때, 그 세상은 시끄러워진다. 어느 새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새 해다. 세간엔 지난 한 해 시끄러웠던 일들이 여전히 시끄럽게 많이 남아있다. 돌이켜 보면 지나온 여러 해가 늘 그랬던 것 같다. 더구나 해를 더할수록 그 법과 어긋나 있는 모습들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마음의 씁쓸함 역시 해를 더할수록 더하다. 다투고, 속이고, 감추고, 외면하고, 빼앗고. 그 모습이 점점 익숙해지기까지 하는 세태가 안타깝다. 친구가 서로 무섭고, 이웃이 서로 무섭고, 선생과 제자가 서로 무섭고, 국민과 국민이 서로 무섭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무서운 일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 무섭다. 문제는 그렇게 여법하지 못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슬프고 아파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울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나의 부모와 자식이 울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여법하지 못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친구라는 말, 이웃이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말, 어르신이라는 말, 위정자라는 말이 따뜻한 말로 있어야 한다.

이제 부처님의 시절과 또 한 해 멀어졌다. 멀어지는 일만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부처님 법은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면 괴로운 과보 받고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 받는다"고 하셨다. 우리가 하자. 부처님 가까이 사는 우리가 먼저 걱정하자. 새해 아침. 값진 시간이다. 이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먹먹한 일인가. 오늘, 향 한 자루 들고 부처님 앞에 서자. 그리고 서원하자. 우리 모두 여법한 한 해 되기를….

전통문화 배제한 문화올림픽이라니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후손에 계승할 만한 가치가 높은 문화적 소산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이외에 다른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든 인류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사적 산물이든 특별한 제한 없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과 석굴암 · 불국사가 불교계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문화유산을 보존 · 계승해야 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종교라는 잣대를 들이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일을 벌이곤 한다. 현재 평창 월정사가 종교라는 이유로 문화올림픽서 배제되는 현상은 문화유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19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개최지 평창은 오래 전부터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그리고 평창의 중심에는 오대산과 월정사가 있다. 그럼에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각 지역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에서 오대산과 월정사는 만날 수 없게 됐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문화유산을 편협하게 선별한다면 진정한 우리 민족의 얼은 빼놓은 채 수박 겉핥기만 제공하는 셈이다. 진정 종교라서 안 된다는 논리라면 조선시대 유교문화나 근대 민족종교 등이 중심이 된 것까지 모두 배제해야 옳을 것이다. 문화유산에 종교 잣대를 들이미는 일은 그만두고 진정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정부부터 되돌아볼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謹賀新年
Season's Greeting and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회 주 혜명스님
주 지 진성스님
총 무 정해스님
교 무 보문스님
기 획 정원스님
홍 보 송운스님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로 367 ☎ 063)433-0012
http://www.maisantapsa.co.kr/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전주 한옥마을 르윈호텔에서 열린 제 17,18대 전북종무원장 이 · 취임식에 참석해주시고 성원과 격려 보내주신 원로 대덕 큰스님, 전국 원장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 나누우리 회원스님, 전북 사암 스님, 교임, 전법사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암 주지스님들과 교임, 전법사 원주 보살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전북종무원을 새롭게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북 교구 종무원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기쁜 날이었습니다. 종도와 사회를 위해 종무원으로 공심을 가지고 열성으로 종무행정을 펼쳐 가겠으며 내년 3월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성공기원 영산용궁대재가 성공적으로 봉행될 수 있도록 태고종의 화합과 위세를 널리 홍보하는데 원력을 쌓아 나가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기 2561년 12월 27일

전북교구 종무원장 청파진성 합장

후원해주신분들 (무순)

나비엘 익산갤러리 신창재 지리산 한방병원 김성례 김정수 속금회 김의순 중앙승가강원 6기 천지사 서용숙 동국대 사찰경영대학원 원우7기 봉원사 남원 미륵암 남원 연화사 남원 분원회 초심원장 구산스님 청주 석문사 군산 성흥사 광양 용문사 김문석 익산 대인사 고창 보안사 이재환 이재현 부산 서부종무원 최경수 안남규 구기수 무등산 선훈사 팔도마당 대명선원 동아주류상사 경남종무원장 혜창스님 부산 천불정사 서울 백련사 전주 백련암 서근필 김광순 백제회관 이강원 이준기 수향떡집 반야회 윤선예 하진희 신정자 김순자 정종규 신기환 최종문 무명인 노윤희 정수정 최소영 정연숙 문영모 제주 수정사 한은호 구지서 전주교도소 사회복귀과 조성문 남원 관음사 최미자 김제 원각사 삼경태크 전북불교대학 김수배 순천 선암사 안동 연봉사 서울 골드론 인천 월천사 양주 청련사 청주 용화정사 진천 약수암 동방불교 새만금일보 김점선 허호석 동국대학원 사찰경영 66기 김오식 이중선 정광옥 김용진 월랑회관 김명숙 신대철 박순정 백제회관 우애순 원불교 봉공회 정인택 신붕흥 박홍규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양주 청련사 성오스님 김대근 임실 안도암 태인산업 대불청 전북지구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 한문화 국제협의회 홍경임 하철호 마이산 해설사 일동 산해진미 홍성화 대광광고 완주 보리암 김경철 정인건설 영성회 하상희 온천 주유소 박창준 박희영 이정모 전주 쎄시봉 장우재 허소군 전주우리병원 최주연 박미경 금강선원 이금수 화운사 김제 영천암 김영은 원로의장 덕화스님 전법사회장 진화 경기남부 종무원 부산 보현사 마이산 남부상회 소리디딤 김지영계장 동대총동문회4기 장경술 하춘생 아산 용화사 죽림식당 진안갑계원 정읍 두승사 천수승가회 벽산문도회 마하연 승가회 정읍 일광사 김제 성덕사 김제 쌍용사 김제 용봉사 고재갑 정해자 탑밴드 안중화 도광문도회 고우상 이수열 김종래 이성재 정태규 사랑의 울타리 정 만우스님 전주 보문사 비마월드 삼마주유소 서울북부종무원 익산 태봉사 순창 장덕사 경기중부 종무원 경기북부종무원장 영산작법보존회 김의순 송경자 박찬연과장 백윤식 동국대학 총동문회 김우기 박순이 이명순 전주이씨 종친회 금강승가회 김제 월명암 탁현상 경기 자비정사 전남종무원장 전미숙 최민자 한국불교태고종 유영봉 김남순 강상원 최보현 대호골프 광법사 수왕사 추병곤 한국종교인협의회 홍준 서울 삼각사 이동호 삼경태크 인천 계암사 전국비구니회장 전주우리병원 진안 솔잎회 대전 선유암 서울중서부종무원 서울 봉원사 아이댄스 전주 실상사 최원석 정읍 꽃시장 조성문 신진종합건설 한복갤러리 최규철 전주불교연합회 설훈국회의원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원희룡 전북일보 솔건축 코리아 시낭송작가협회 경북동부종무원 정공문 이삼진 해동불교 광주교정연합회 원산스님 송지해 쎄시봉사람들 마이웨딩홀 안성 모박사 전태평 새만금일보 특별교구 용문사 신대철 전주교도소 일반교화위원 대구 혜인정사 제주교구 종무원 전북유도회장 한문화 국제협의회 조범률 김관수 서진숙 하남주 진안중 32회 동문 박흥섭 문기문 마이산 명품관 남기재 조희연 백련사 자비원 동문특수인쇄산업 광명양초 한문화국제렵의회 기수발전협의회 삼국건설 불이성 법륜사 한미동맹친선협의회 코아플라워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권영민 스파세종 노추산 녹유사 안양 백운사 진안쌍봉사 대원불교유심종 민규식 김대근 심용운 서향환 익산 석불사 나누우리 봉사단 자명스님 응현스님 성결교회 탑사전국신도회장 한선미 광주교정청 허부경 이금령 (주)청하 탑사신도회장 김경춘 삼성 렌트카 대구 혜인정사 신도회 김경은 호남 범음회 부산 구평사 인천 월천사 중도기획 정인건설 시사전북 서울 성주암 강원 청계사